

아이들 무서워 울고  
부모는 미안해 울고

## 어린이집 '드라이브 스淚'

〈눈물 루〉

광주 동구청 주차장 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 가보니

"오야양...엄마 무서워"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6일 오전 광주시 동구청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애연 아이들까지 고생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2·3·6·7면〉

광주에서 미취학 아동 2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이 지난 3일까지 다닌 어린이집 출입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검체채취가 광주시 동구청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취약계층 응급차 타고 검사  
방역지침 통보 안 돼  
확진자 가족들 '불안한 밤'

들까지 긴장했다. 검사 받기를 꺼리는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부모의 무릎 위에 앉힌 채 어린이의 몸을 양쪽에서 잡고, 발버둥칠 것에 대비해 발까지 잡은 채로 검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모두 울음을 터트렸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끌어 안은 부모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검체채취는 20cm 길이 면봉 형태의 키트를 목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이어 코 속으로 키트를 넣어 흔들며 DNA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체 채취를 하는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데, 어린이들에게는 고통과 공포 그 자체였다. 목이나 코 속으로 긴 면봉 형태의 키트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은 울고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트렸다.

울음은 아이들뿐만 아니었다. 아이들이 울자 부모들도 아이를 힘들게 한게 본인 때문이라며 같이 울었다.

이날 확진자 아동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자식의 부모는 검사장에서 "맞벌이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나 땀에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집에서 아이를 봤어 했는데..."라고 울먹였다.

검사장을 찾은 엄마는 아이가 검사과정에서 울자 이런 상황이 너무 힘에 부친 듯 몸부림치며 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차량이 없는 취약계층 가정은 이동에서부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시 동구 산수동 어린이집을 다니는 남매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6일 오전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 원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19구급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와 검사를 응했다.

8남매 중 5살 난 딸이 다솜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취약계층 부모는 광주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검사장을 찾았다. 오토바이 한 대 밖에 없어 8남매 자녀들을 모두 이동시키기 곤란해하던 이 부모는 학교에서 119구급차를 지원해줘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자녀 한 명을 태우고, 어머니가 나머지 아이들을 구급차에 태워 동구청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주부인 한 여성은 남편이 출장을 가 자녀 2명과 검사장을 찾기 위해서는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들은 연신 자신을 때문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자책하면서도 보건당국의 대응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검사장을 찾은 노모씨는 "지난 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이동경로를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면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인 유모씨는 "어젯밤에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는 받았지만 행동수칙은 오늘 검사장에 와서 받았다"면서 "밤새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불안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확진자 동선 능력 공개 항의 빗발...광주시 "개선 하겠다"

"확진자 사는 아파트도 공개"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늦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산으로 시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가 늦어져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만에 확진자가 83명이나 추가 발생하면서 구청 역학조사팀의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확진자 구술에 의해서만 동선을 발표했

다가 오류로 인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확진자 동선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선공개는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동선 확인과 공개를 직접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확진자에 대해서는 시

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가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동선공개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대해선 철저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선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등 전국 5개 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국 5개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19발(發) 경제 위기 타개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공공총량제를 풀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 포함하는 등 지방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 대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 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했다. 이들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수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지방의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도 주장했다.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이어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광주 등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 ▲유턴 기업 비수도권 정착을 위한 세금·금융비용 감면 및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BRO&T!PS**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NEVER OILY

ALL IN ONE

•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